광주불교계, 아이파크 붕괴 사태 아픔 보듬다

광주불교연합회 2월 16일 붕괴현장 천도재 봉행

불자 60여명 모여 천도의식
2월 7일에는 구조대원 격려
희생자가족협의회서도 참석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월 16일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합동 조문장소에서 회원사찰 스님 30여 명과 신도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도재를 봉행했다.

광주아이파크 붕괴 사태가 수습 중인 가운데 광주불교계가 피해 아픔을 보듬는데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지난 2월 16일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합동 조문장소에서 회원사찰 스님 30여 명과 신도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는 강추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진행됐다. 천도재는 광주무형문화재 제23호인 광주영산재 이수자 월인 스님의 법고를 시작으로, 영산재의 작법무가 이어졌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인 불복장 이수자 도성 스님의 집도로 천도의식, 금강경 독송 등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또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강윤구) 회원, 서구청불자회(회장 손회숙) 회원도 참여해 마음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건설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추운 겨울 건물붕괴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시간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께 천도의식에 참여한 서대석 서구청장은 "추운 겨울 이렇게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해 지극정성으로 의식을 봉행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화정동에 위치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붕괴사태는 1월 11일 신축 중이던 1개 동 붕괴로 6명의 실종자와 매몰자가 발생했다. 약 29일 간 수색작업을 통해, 2월 8일 구조작업은 마무리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 7일 구조본부를 방문해 오랜 수색작업으로 지친 500명의 공무원에게 간식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최종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회원사찰들이 참여해 천도재를 함께 봉행하게 됐다.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한 강윤구 단장도 "지난 1개월 동안 광주시민의 아픔과 걱정이 함께한 붕괴사고였다. 희생된 분들에게 장엄한 불교의식을 통해 천도의식을 봉행한 것이 감격스럽다"며 "진심으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천도재 의식에 함께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희생자 가족협의회'는 사전 성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만 1년 안에 2번의 사고를 일으킨 연쇄살인 기업"이라며 "구조작업이 시작될 때와 같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목숨 앞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상봉동 여래사, 제24회 장학금 전달식

2월 16일 동봉 스님 등 참석해 전달



진주 상봉동 여래사는 2월 16일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 45명에게 각각 30만원씩 1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 상봉동 여래사(주지 동봉)는 2월 16일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지역 23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등 총 45개 학교 45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13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 여래사 인재불사는 2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급한 장학금은 2억 원에 이른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래사 주지 동봉 스님이 박영주 교육장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했다.

동봉 스님을 비롯한 여래사 대중들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계기는 여래사가 위치한 진주 상봉동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1999년 알게 되면서부터다. 학교회비를 납부하지 못해 학생들이 부모와 다투는 것을 본 스님이 동사무소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며 장학금 전달이 시작됐다. 여래사는 동사무소로 장학금을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장학금 전달이 중단, 교육청으로 기탁하게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종립 정광학원, 설립자 만암대종사 흉상제막



한국 근대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한 만암 스님의 흉상이 정광학원 대승원에 세워졌다.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2월 11일 대승원 1층 현관에 학교 설립자 만암 스님 흉상을 조성하고, 교육사업 뜻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성된 만암 스님 흉상은 70세 때 모습으로, 흉상 제작에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광주 문빈정사, 증심사, 금선사, 나주 운흥사를 비롯해 정광학원 교직원 일동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원일 스님(前 정광학원 이사장),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 석장 스님(문빈정사 주지),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함병권 정광고 교장, 이동배 정광중 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광학원은 호남 유일 종립학교로 호남불교 원력이 모인 곳"이라며 "이 터전을 만들어 주신 만암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정신에 맞게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사 석장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만암 스님은 1946년 고령인 70세의 나이에도 목포 정광정혜원에 정광중학교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도록 교육사업과 정법안장 포교에 헌신했다"며 "2021년 8월 이사회 발의로 정태전 작가에 의뢰하여, 2021년 9월 23일부터 4개월간 제작했다"고 보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흥사, 군산교도소 코로나 극복 나눔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와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스낵류 1000봉을 전달했다.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2월 16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유기용 군산교도소장에게 컵라면과 스낵류 1000개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군산교도소를 지원하는 송월 스님이 최근 수용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과 논의하며 이뤄졌다.

송월 스님은 "모두가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원시니어클럽, 전주 농협과 업무협약

시니어 10명 농협 파견
금융범죄 사전예방 홍보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일원, 금산사 주지)서 위탁운영하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이 전주농협과 2월 9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금융 업무지원을 위한 '시니어금융서포터즈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금융서포터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0개월 간 만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이 단위농협에 파견돼 서류 작성법, ATM기기 사용법,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사전예방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미디어에 취약한 농민 · 노인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생활정보 · 복지혜택 등 정보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경옥 서원시니어클럽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위농협을 찾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업무 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우림 스님은 "경제일선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 및 노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동안거 해제 맞아 기후위기 실천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가 동안거 해제를 맞아 기후 위기 대응 실천에 나섰다. 백양사는 2월 15일 대웅전에서 안거회향식을 열고 회향을 기해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수좌 일수 스님,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고불선원, 운문선원에서 정진한 대중 스님들이 참여했다.

백양사 대중은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결의를 통해 △우리 불자들의 소박한 삶, 자연과 더불어 적게 소유하고 나누며 살겠다. △우리 사찰은 탄소중립을 위해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 등 4가지 실천안을 선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한국불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 회원모집

한국범음범패 역사 120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부산불교어산회(현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의 모체) 로서 과거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의 범패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그 행적(行跡)으로

1800년대 | 부산어산회 발족. 기념사업으로 범어사 경내에 어산교 준설
1897년 | 범음요집 발행
1947년 | 대산집 발행
1972년 |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
1993년 |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지정

**본 단체는 선배제현께서 물려주신 의범(儀範)을 수련연마하고
각지역 및 해외 공연과 시연으로 불교전통음악을 널리 알리는 소임을
같이 할 뜻있는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임시모집일** : 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합동수련개시일** :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문의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불교어산회